

(7)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조문희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책 <input type="checkbox"/>
구분 선정 사유	<p>최근 세계 각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다자협상 및 FTA 등을 통해 상당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진 관세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비관세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증가추세에 있음.</p> <p>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교역 및 산업별 경쟁력,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p> <p>이를 위해 (1) 주요국의 최근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2) 최근 새롭게 구축된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와 기존의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둔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p>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호무역이 되살아날 조짐이 포착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비관세조치 완화가 국제통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임.
- 단기적으로 개별 국가는 국내 산업 보호, 금융 위기 등의 특수한 경제 여건 및 기타 정치적 이슈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인센티브가 존재함.

○ 세계 각국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역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정책보다는 비관세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둔화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주요국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비관세조치가 교역둔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한 비관세조치가 교역 및 산업별 경쟁력,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1) 주요국의 최근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2) 최근 새롭게 구축된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와 기존의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둔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A model of substitution of non-tariff barriers for tariffs - 연구자(연도): Yu(2000) - 연구목적: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대체성에 관한 연구	- 문헌연구 - 이론분석	- 각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할 경우, 관세 감축과 비관세 장벽 사이에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론적 모델 제시
	2 - 과제명: Openness, firms, and competition - 연구자(연도): Hallward-Driemeire(2001) - 연구목적: 개방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가 기업의 턴오버 및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Estimating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li> <li>- 연구자(연도): Kee, Nicita and Olarreaga(2009)</li> <li>- 연구목적: 무역제한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이론분석</li> <li>- 실증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력 모형 변수들과 비관세조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함.</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Trade liberalization and antidumping: is there a substitution effect?</li> <li>- 연구자(연도): Moore and Zanardi(2011)</li> <li>- 연구목적: 관세인하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통계분석</li> <li>- 실증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부터 2002년까지 6개 선진국과 29개 개도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li> <li>- 반덤핑관세 부가가 빈번한 개도국 사이의 교역에서 관세 인하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간의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남.</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Gravity redux: Measuring international trade costs with panel data</li> <li>- 연구자(연도): Novy(2013)</li> <li>- 연구목적: 무역 비용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이론분석</li> <li>- 실증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비용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 제시</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Trade policy and market power: firm-level evidence</li> <li>- 연구자(연도): Asprilla, Berman, Cadot and Jaud (2016)</li> <li>- 연구목적: 무역정책이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이론분석</li> <li>- 실증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정책이 기업의 가격차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li> <li>- 연구자(연도): 김영귀 외(2011)</li> <li>- 연구목적: 개방이 시장의 경쟁 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이론분석</li> <li>- 통계분석</li> <li>- 실증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이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li> <li>- 연구자(연도): 최낙균 외 (2011)</li> <li>- 연구목적: 보호무역조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이론분석</li> <li>- 통계분석</li> <li>- 실증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무역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호주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li> </ul>

##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b>본 연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신보호무역주의 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통계 조사</li> <li>- 이론분석</li> <li>- 실증분석</li> <li>- 전문가 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정리 및 분석</li> <li>- 최근 비관세조치 DB를 활용한 유형별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li> <li>- 비관세조치가 교역 및 산업경쟁력, 시장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li> </ul>
-------------	--	---	---

## ■ 주요 연구내용

### 비관세조치 현황 파악

- 그동안 관세에 비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이유는 비관세조치의 경우 산업별로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점에 기인함.
- UNCTAD는 최근 비관세조치를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는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말에는 잠정적으로 RCEP 국가들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본 연구에서는 UNCTAD 세계 비관세조치 DB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주요국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UNCTAD 분류체계에 따른 비관세조치 데이터 구축은 Mapping → Coding → Cross-checking의 3단계 절차를 걸쳐 이루어짐.

- (Mapping) 각국의 법령에서 비관세조치 분야별로 코딩을 위한 우선순위를 지정
- (Coding) 상위 우선순위의 비관세조치 분야부터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비관세조치를 도출하여 체계화된 NTM Code에 따라 분류
- (Cross-checking) NTM Code에 따른 비관세조치 분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 최신 UNCTAD 비관세조치 DB와 기존의 비관세조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둔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량화하는 작업, 즉 비관세조치 유형별 무역저해효과 추정을 시도할 예정임.

○ 지금까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이라는 주제로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이론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설령 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추정치들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음.

○ Kee et al.(2009) 및 Novy(2013) 등을 이용하여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 비관세조치 유형별 무역저해효과 추정
- 새롭게 구축된 비관세장벽 DB를 반영하여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 개선
- Kee et al.(2009)의 기본 모형은 아래와 같음.

$$\ln m_{n,c} = \alpha_n + \sum_{k=1} \alpha_{n,k} C_c^k + \beta_{n,c}^{Core} Core_{n,c} + \beta_{n,c}^{DG} \ln DS_{n,c} + \epsilon_{n,c} \ln(1+t_{n,c}) + \mu_{n,c}$$

여기서  $m_{n,c}$ 는 c국의 n상품 수입액,  $\alpha_n$ 은 n상품 고정효과 더미,  $C_c^k$ 는 c국 k개의 국가특성변수,  $Core_{n,c}$ 는 (c국의 n상품에 대한) 주요 비관세조

치 더미변수,  $DS_{n,c}$ 는 국내 농업보조액,  $t_{n,c}$ 는 종가관세,  $\epsilon_{n,c}$ 는 수입수요 탄성치,  $\mu_{n,c}$ 는 오차항임.

□ 산업별 생산성 및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 (데이터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국의 산업별 생산성을 추정하고 비관세조치와의 관계를 분석
- 허핀달-허쉬만지수(HHI), 기업집중지수(CR: Concentration Ratio), Market Power,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 Import Penetration 등을 통해 시장구조를 파악하고, 비관세조치와 시장구조 간의 관계 분석

$$HHI = \sum_{i=1}^N s_i^2$$

여기서  $s_i$ 는  $i$  기업의 시장점유율임.

$$CR_k = \sum_{i=1}^K s_i$$

여기서  $s_i$ 는  $i$  기업의 시장점유율임(K번째까지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목차 (잠정)

제1장. 서론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 현황

가. 신보호무역주의 개념과 수단

나.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NTM DB 분석

다. 소결

제3장.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론

나. 비관세조치의 유형별 무역저해효과

다. 소결

#### 제4장. 비관세조치와 산업구조

가. 비관세조치와 무역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나. 비관세조치와 산업별 생산성, 시장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다. 소결

#### 제5장. 결론

\* 주요국의 산업별 데이터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 기업집중지수, Market Power,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 Import Penetration 등을 고려할 예정임.

### ▣ 연구추진방법

문헌조사 및 통계 분석

관련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및 간담회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7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7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7년 11월

- 국외 출장

▪ 8월 중 미국 워싱턴 D.C. 1회(1인) 계획

▪ 목적 및 필요성: 보고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주요활동: 해외 현지조사 및 전문가 면담 실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초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4	13	신뢰외교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파악 및 관세상당치를 추정하고, 비관세조치가 무역 흐름, 산업 생산성,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최근 비관세조치 DB와 기존 관세추정치 방법론을 연계하여 분석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7.01.01.	종료일	2017.12.31.
------	---------	------	-------	-----	-------------	-----	-------------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3,0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300×12월=3,600 ○ 통신요금 50×12월=600	4,200

###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3.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모품 등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등 200×12월=2,400</li> </ul> </li> <li>◦ 인쇄 및 출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li> <li>- 자료 복사비 100×12월=1,200</li> </ul> </li> <li>◦ 간행물구입비 100×12월=1,200</li> <li>◦ 기타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료, 신문구독료, 주차료 등 (200×12월)+400=2,800</li> </ul> </li> </ul>	10,6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장비(업무용 PC 및 복합기) 리스 100×12월=1,200</li> </ul> </li> </ul>	1,200
5.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여비 (100×1인)×5회=500</li> <li>◦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료(Economy) (3,021×1인)×1회=3,020</li> <li>▪ 숙박비(가급지, 2호 가목) [(\$176×6박×1인)×1회]×1.15=1,210</li> <li>▪ 일·식비(가급지, 2호 가목) [(\$111×8일×1인)×1회]×1.15=1,020</li> <li>▪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50×1인)×1회=50</li> </ul> </li> <li>- 스위스(제네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료(Economy) (2,530×1인)×1회=2,530</li> <li>▪ 숙박비(가급지, 2호 가목) [(\$176×4박×1인)×1회]×1.15=810</li> <li>▪ 일·식비(가급지, 2호 가목) [(\$111×6일×1인)×1회]×1.15=770</li> <li>▪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50×1인)×1회=50</li> </ul> </li> </ul> </li> <li>◦ 초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 관련) (50×3인)×3회=450</li> </ul> </li> <li>◦ 시내출장 45×12월=540</li> </ul>	10,950
6. 연구정보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구입비 750×12월=9,000</li> </ul> </li> <li>◦ 특근매식비 (6×14회)×12월=1,000</li> </ul>	10,000
7. 전문가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참석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 (300×1인)×2회=600</li> <li>-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 (100×3인)×2회=600</li> </ul> </li> <li>◦ 연구 및 회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비(연구심의회) (250×3인)×3회=2,250</li> </ul> </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료 500×1회=500</li> <li>- 검독료 (200×5인)×1회=1,000</li> </ul> </li> </ul>	4,950
8.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의비 (30×5인)×5회]×12월=9,000</li> <li>- 연구심의회비 (30×10인)×3회=900</li> </ul> </li> <li>◦ 학술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2회=1,200</li> </ul> </li> </ul>	11,100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항 없음</li> </ul>	-